

# action/2015 Korea 캠페인 런칭 설명회

## - 회의 결과 -

### □ 개요

- 일시 : 2014.7.2.(수), 오전 10:30~11:40
- 장소 : KCOC 회의실 1
- 주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 참석단체: GCAP, KCOC, KoFID, 경실련, 메디피스, 세이브더칠드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월드비전, 지구촌나눔운동, 프렌드아시아, 플랜코리아, 한국YMCA전국연맹, 홀트아동복지회 단체 실무자 총 15명.

### □ 회의 순서

- 10:30 - 10:40 참가자 인사 (전체)
- 10:40 - 10:55 action/2015 캠페인 소개, 1차 설명회 내용 공유 (KCOC 전지은 대리)
- 10:55 - 11:15 action/2015 Korea 캠페인 런칭 기획안 설명 (KoFID 문도운 간사)
- 11:15 - 11:40 질의 및 응답, 의견 교류

### □ 논의 내용

#### 1. 캠페인 설명 내용(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안 참조)

- 국제적으로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해 action/2015\*라는 캠페인이 기획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action/2015 Korea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회원단체를 모집하고 있음
- action/2015 Asia 차원에서는 부정의, 불평등, 불안정에 대항하는 “나는 행동한다(iMOVE)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 19일에 개시할 예정임
- 한국에서는 범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정책포럼을 기획중임

#### 2. 질의 및 응답 내용

- 현재 SDGs의 목표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그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이 가능한가?  
시점이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SDGs의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상 속 실천에 초점을 맞춰던 것임. 실천과 이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면 대중을 대상으로 SDGs 목표에 핵심 의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도 있음. 아시아의 경우, “I MOVE for OO”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하여 Post-2015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계획중임.

\* <http://www.action2015.org/> 참조.

➤ action/2015 캠페인 주제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는 Post-2015와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가 폭넓은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꾀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섹터별 이슈의 하나로 정하였음. 또한 아직 Post-2015 개발 의제의 정확한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SDGs가 MDGs를 대체하거나 상당부분이 반영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DGs를 주제로 선정하였음. 용어는 ‘SDGs’, ‘지속가능목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등 참여 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action/2015 캠페인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action/2015 캠페인은 그 자체로 어떤 구체적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낸다고보다는 대중들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mobilization)으로 기획되기 시작한 것임.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활발한 목소리가 유엔과 정부기관에 전달하면 SDGs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

➤ action/2015 Korea에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action/2015 India 또는 action/2015 Nepal 등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action/2015 캠페인은 각국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맥락에 차이가 있음. SDGs를 소개하고 새로운 개발목표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인식을 제고하는 의미를 가진 캠페인이 될 것임. SDGs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섹터별로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고자 함.

➤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일단은 SDGs 존재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임. 먼저 1단계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2단계로 청원활동에 연계할 수 있음. SDGs에 대한 인지를 제고하고 SDGs 수립과정에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음. 그 이후 정부에 대한 책무성 이행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초반에는 Post-2015와 SDGs에 대해 알리고 꼭 포함되어야 할 중요 이슈를 시민들이 선택해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후반에는 SDGs의 실천과 정부에 대한 계획 수립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겠음.

➤ 현재 참여 단체별로 각기 다른 주제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오프라인 행사의 단체별 부스를 마련한 취지는 action/2015 캠페인만을 위한 내부적 역량과 여력이 현실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단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각 단체별로 초점이 다르므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각기 통일된 형식과 문구로 캠페인을 통일성 있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action/2015 Korea의 거버넌스는?

향후 참여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며 사무국 역할은 3개 단체(KCOC, KoFID, GCAP)에서 담당. 연대체 소속의 단체더라도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action/2015 Korea의 재정은?

현재 재정은 정책포럼 2회 예산 외에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단체 규모에 따른 1/N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큼. 기업후원 및 KOICA 지원도 알아볼 계획임.

➤ 참여는 반드시 온·오프라인 함께 해야 하는가?

단체별로 희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대한 캠페인 참여가 가능함.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하나 가급적 기획단계에서부터 힘을 모아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 3. 결정사항

(1) action/2015 Korea 캠페인을 통해 전달할 메시지

전반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지제고 및 핵심 의제에 대한 강조\*\*

후반부(2014년 말~2015년 9월): 대중을 대상으로 SDGs의 생활 속 실천의지를 제고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범정부 수립계획 수립을 촉구

(2) 캠페인 참여 여부

8월 19일(화)을 기점으로 온라인 캠페인을 개시하고 8월 23(토)에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각 단체에서는 참여 의사를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전달(뒷면 참여 신청서 참조)

(3) 장기 계획

2014년 10월 이후 2015년 9월까지의 장기적 계획은 참여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 action/2015 Korea 캠페인에 참여할 단체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action/2015 캠페인의 reference group에 등록하면 향후 action/2015 관련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http://bit.ly/Action2015Campaign\\_Registrationform](http://bit.ly/Action2015Campaign_Registrationform)

---

\*\* 문구 예시: “2030년까지 \_\_\_\_ 없는 세상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개발목표에 \_\_\_\_가 꼭 포함되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